

사설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수강신청 제도 개편이 내년 1학기로 연기됐다. 학교가 마일리지 제도 도입과 촉박한 시행 일정, 일부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를 반영해 시행 시기를 한 학기 늦추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시행 일정이 변경된 것을 넘어, 학교의 주요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마련되고 시행돼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학교는 지난해 5월부터 수강신청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1년 넘게 제도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타 대학 사례를 검토하고 총학생회와 논의를 이어오며 기존 선착순 수강신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반면 학생들은 개편안 공개 이

후 충분한 설명 없이 새로운 제도가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마일리지 제도에만 관심이 집중된 탓에 사전 수강신청 제도 도입, 학년별 정원 공개 등 다른 핵심 개편 사항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다.

수강신청 제도 시행이 연기된 것은 학교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홍보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은 충분하지 못했다.

이는 수강신청 제도 개편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학교가 발표한 다전공 의무화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세부 운영 기준과 관리 체계, 그리고 제도에 대한 홍보는 여전히 부족하다.

취지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친절하고 세심한 안내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완성도는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학생들과 어떻게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특히 수강신청, 다전공과 같이 학업과 졸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앞으로의 정책 결정은 내부 검토 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설계 단계부터 학생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제기된 학생 의견을 실제로 반영하는 과정

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설명회와 공청회, 온라인 의견 수렴 등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유보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다. 학교는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방법을 활용해 개편안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생들 또한 막연한 찬반 논쟁을 넘어 보다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수강신청 개편 시행 연기가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넘어 향후 학교의 주요 정책 결정을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세시봉

관중 난입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좋아하는 야구 기사를 자주 찾아보는데, 어느 날 당혹스러운 뉴스를 접했다.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응원 구호가 나와 큰 파문이 일었다는 것이다. 경기 중 배재고 선수 일부가 상대인 광주제일고팀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를 연호하고 “탱크 데이”를 외쳤다. 과거 논란이 된 마케팅 문구를 차용해 경기 도중 지역 혐오성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어릴 적 리틀야구를 해본 경험이 있어 벤치 분위기를 조금은 안다. 아마추어 야구에서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고 투수를 흔들기 위해 다소 거친 구호나 야유를 주고받는 일은 흔한 더그아웃 문화 중 하나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의 기싸움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상대의 실력이나 경기 상황을 도발하는 것을 넘어, 특정 지역의 아픈 역사와 희생을 조롱하는 것은 명백한 혐오와 폭력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 이후 당사자인 배재고 야구부원과 학부모들은 지난 6일 직접 광주일고를 방문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광주일고 역시 이를 수용하며 학생들은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였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화해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사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진정한 교육의 장이었다. 잘못을 마주하고 용서를 구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은 승패를 떠나 스포츠가 지닌 가장 가치 있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반면 어른들의 모습은 참담하다. 배재고 정문 앞에는 비난과 옹호가 뒤섞인 근조·응원 화환이 대치하듯 놓였다. 미성년자인 선수들의 신상 털기가 자행됐고, 심지어 특정 학교를 향한 폭발물 테러 협박과 정치권의 소모적인 공방까지 이어졌다.

학생들은 비신사적인 잘못을 저질렀지만 직접 용서를 구하며 성장했다. 반성하고 회복할 기회를 학생들 스스로 증명해 낸 것이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아이들의 잘못을 이념 싸움의 땀감으로 삼아 그라운드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그라운드 위의 아이들은 이미 악수를 끝냈지만 관중석은 여전히 시끄럽다. 어른들은 언제쯤 경기를 끝낼 것인가.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논란의 학점포기제

적어도 불리하진 않게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학점엔 한 학기 동안의 수업 태도, 시험 결과, 제출 과제, 출석 성실성이 모두 반영된다. 성적은 학생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영역이다. 시험을 못 봤고, 과제를 덜 했고, 수업을 놓쳤다면 그 결과가 기록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에 학교 입장에서 낮은 학점을 지우게 해달라는 요구 앞에서 망설임이 생긴다. 성적을 쉽게 지울 수 있게 되면 학점의 무게도 가벼워질 수 있다.

다만 취재를 하며 만난 학생들의 요구는 단순히 “나쁜 학점을 없애 달라”는 목소리로 치부하기 어려웠다. 대부분 학생은 학점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만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업 시장, 대학원 입시, 교환학생 선발 과정에서 다른 대학 학생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학점은 대학마다 다른 기준으로 매겨지지만 평가의 순간에는 하나의 숫자로 환원된다. 우리학교 취업 준비생 A씨는 “회계사 준비만 하다 취업을 하려니 인턴 등 경력 없이 취업에서 불리할 줄 알았는데 4.5 만점에 4.33이라 회사에서 좋게 봐줘 최종까지 올라간 경험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취업에서 학점은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A학점 비율은 서울권 주요 대학 중 낮은 편이다. 일부 대학은 학점포기제를 폐지 과목 구제 장치를 넘어 학점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른 대학 학생들의 성적 회복 기회가 넓어지는 동안 우리학교 학생들만 기존 기준 위에 남겨진다면 성적 결과를 온전히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학교는 학생에게 어디까지 성적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학교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다른 대학 학생들과 경쟁 환경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학점의 신뢰도를 지키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적어도 제도 때문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일도 필요하다.



만평 학점으로 무거운 어깨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편집인 신동면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